

2022 겨울

제221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 시로 사랑하여라



# 해외 선교 사제

11개 국가 20명



일본

김성천 스테파노 (P.06)

김태근 베드로

김윤복 모세

신광수 베드로

김필중 세례자요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독일 신정훈 미카엘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P.11)



대만

김재원 베드로사벨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경진 베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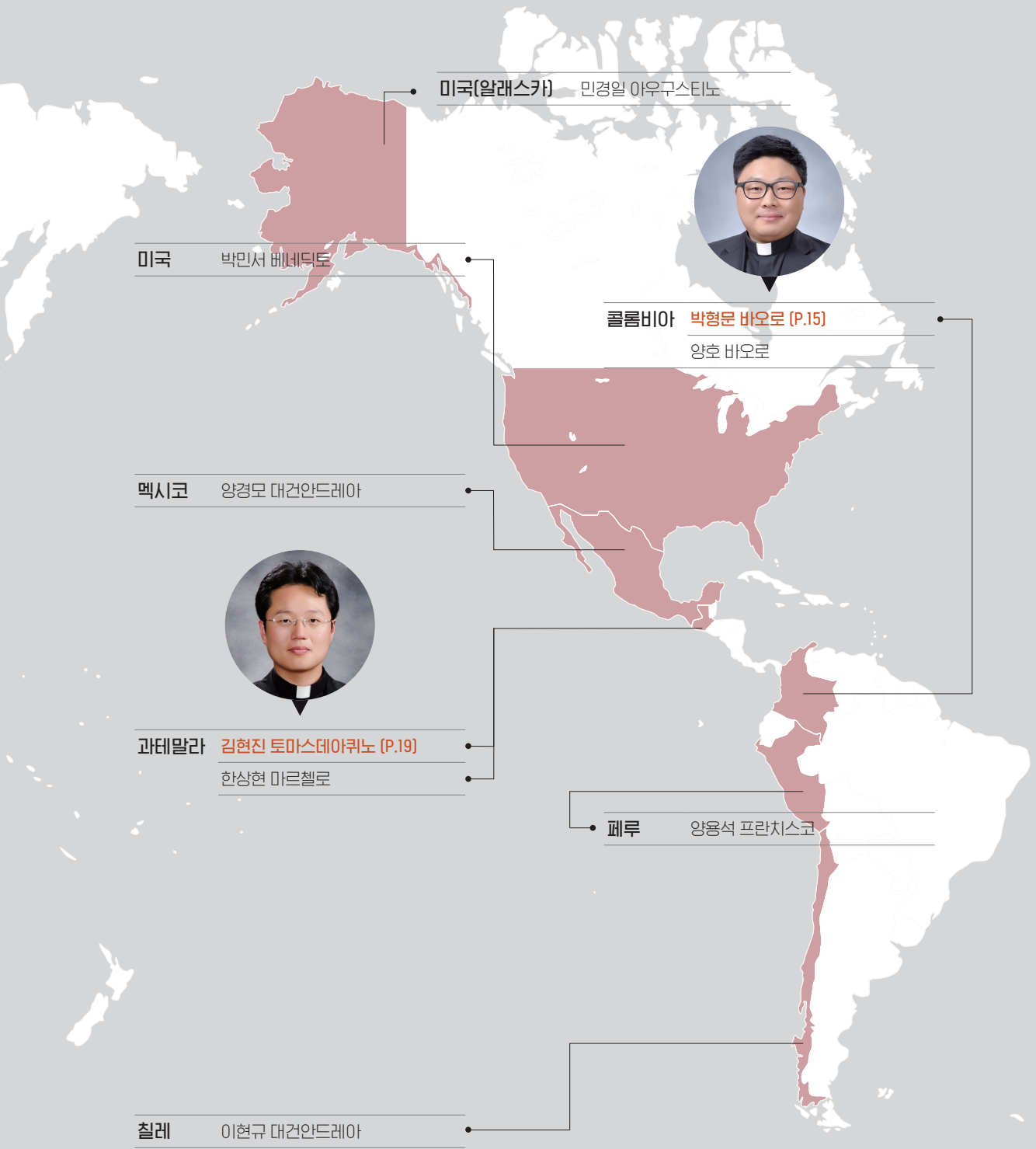


겨울호 특집

1. 해외선교봉사국 | 송영호 신부님 (p.04)

2. 우.본.소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 스페인 고가람 신부님 (p.11)





미국(알래스카)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미국 박민서 베네딕토

콜롬비아 박형문 바오로 (P.15)  
양호 바오로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P.19)  
한상현 마르첼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가자!”

(요한 14,31)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평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 무장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교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 땅에 복음 선포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럽지 않을 신앙의 빛 속에서 거닐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은 이 큰 은총 속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 땅에서 더 큰 세상이라는 또 다른 하느님 백성이 사는 곳으로 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중 우리 교회가 해외선교 사명을 수행해 줄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셨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중 69명이 해외선교를 경험하였고, 현재 스



페인 마드리드, 독일 뮌헨-프라이징, 일본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후쿠오카, 멕시코 몬테레이, 대만 신주와 타이중, 페루 리마, 칠레 이키케, 과테말라 안티구아, 콜롬비아 보고타,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에서 왕성하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단은 국내 선교뿐 아니라 사제를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세상 끝까지 가서 기쁨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기에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꼭 필요한 은총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시어 마치 하

느님 아드님처럼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풍요로운 사랑의 경험을 이 땅에서 꽃피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우분들도 서로 사랑하여 세상 안에 사랑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랑 자체가신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을 빌어, 현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청합니다. 신부님들, 교우 여러분께서도 해외선교 중인 신부님들께서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가득하소서.



## 김성천 스테파노 신부

### 일본 후쿠오카 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식을 통해 이 글을 접하게 되실 12월은 추울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간의 본당 생활 가운데 특별히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알려드린 대로 저는 작년 4월부터 구마모토시 시내에 있는 ‘테



##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8만km<sup>2</sup>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26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성 세례자 요한,

**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토리 성당'과 '오비야마 성당'의 보좌 신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는 '테토리 성당'에 계시고, 저는 주로 '오비야마 성당'에 머물면서 '테토리 성당'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은 주임 신부님과 성당을 바꾸어서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저에게는 '테토리 성당'의 초등부 어린이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강의실에서 준비한 주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때로는 간단한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아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께 물어볼 때가 생깁니다. 서툰 일본어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과 가까워지고 더욱 친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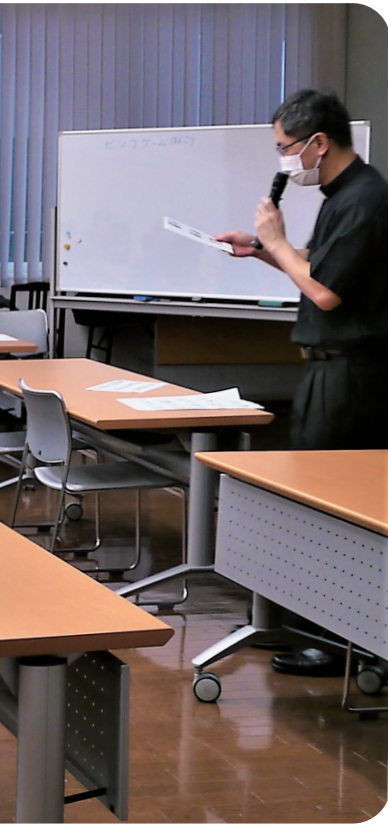
이 자리를 통해 지난번 소개했던 '어린이 식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오비야마 성당'에서 장소를 협조하고 있는 어린이 식당은 작년 6월에 시작했을 때보다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최근 많을 때는 어린이 56명을 비롯해 보호자, 봉사자, 견학자들을 합쳐 128명이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본당 신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신자분들입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본당의 한 청년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식당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어린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식사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가족이 자신들이 키우는 염소 두 마리를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염소들에게 주변에 있던 풀을 먹이면서 즐거워했는데요, 실은 제가 더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당을 이끄는 청년과 함께 도움을 주는 그의 가족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의 기부와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식당을 보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이끄심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여름 저는 테토리 성당 중고등부 행사로 2박 3일 동안 '쿠로시마'라는 곳에 다녀오게 되



었습니다. 그곳은 ‘나카사키현 사세보시’에 위치한 섬으로 ‘사세보시 아이노우라항’에서 배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는데, 하루에 왕복 배편이 3편 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쿠로시마’는 과거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살며 신앙을 유지해 오던 곳입니다. 섬 안에는 ‘쿠로시마 성당’이 있는데, 현재의 성당은 최초의 건물이 아니라 다시 지어진 것으로 1902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당은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섬에는 버스나 택시 등이 없어서 자전거나 도보 혹은 개인 차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보였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주임 신부님께서 소형 버스를 빌려 ‘테토리 성당’에서부터 직접 운전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바다를 건널 때는 여객선에 버스를 실었고, 섬에 도착해서 또 버스를 운전해 주셔서 편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쿠로시마 성당 신부님의 배려로 배낭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낭시를 하러 갔을 때 어른 신자분들 외에 남자아이 3명





이 저희를 맞아 주었는데, 그 아이들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어부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배에서 어른들을 돕는 것이 아주 능숙했고, 순박하게 행동하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 쿠로시마 성당은 평일 미사가 오전 6시에 있었는데, 미사에는 낚시를 도와주었던 아이들을 포함해 몇 명의 섬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방학 때에는 아이들이 새벽 미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미사 후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한 이틀 가운데 하루는 원하는 신자들이 모여 체조를 함께 하였고, 하루는 짧은 십자가의 길을 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섬 아이들과 저희 본당 아이들은 서로 친해졌고, 다음에는 그곳 아이들이 저희 본당 쪽으로 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섬에서 떠날 때, 그곳 아이들은 부두 끝까지 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섬 아이들과의 캠프였습니다. 특히 순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이미 어린 어부로 보였던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자들이 생각났고 그 아이들 역시 사도들처럼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청년 모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있는 본당과 주위의 본당을 보니 미사에 나오는 청년들이 많지 않고, 청년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한 자리가 최근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주위 본당 신부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 내 청년들을 지구장 본당인 '테토리 성당'에 초대했습니다. 물론 교구 청년 모임 등 기존 모임이 있지만, 본당 간 거리를 고려해 그보다 작은 규모의 모임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모처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좋았고, 다가오는 주님 성탄 대축일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 본당의 청년 모임과 함께 이 모임도 활성화



되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신앙 안에서 내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제가 글을 쓰고 있는 11월 일본교회의 기도 지향은 ‘해외 선교사들’입니다. 지향 내용처럼 ‘해외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에 힘입어 봉사하는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고가람 스테파노 신부

### 스페인 마드리드 대교구

아직 주님 탄생 대축일이 4주나 남은 때이지만, 스페인 곳곳은 이미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은 12월 21일에 발표된 크리스마스 복권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 있고, 상점들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와 같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인형들로 창문을 단장합니다. 또한 가게 안 진열대는 크리스마스철에 주로 팔리는 물건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는 알록달록 오색찬란한 빛을 내는 조명이 설치되고, 유명한 광장들에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모든 성당에서는 구유를 만들기



시작할 텐데, 그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본당의 이름은 ‘성녀 크리스티나와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입니다. 두 본당은 겹어서 10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고,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다른 본당이었는데, 지금은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을 모본당으로 하여 하나의 본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성녀 마르가리타 성당은 과거 ‘네오까페꾸메나도의 길’ 회원들이 같이 모여 미사 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공소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성당 모두 우리나라로 치면 구(區)에 해당하는 라티나 지역에 위치합니다. 라티나는 마드리드 서쪽에 있으며 1845년 개발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이들보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잘 사는 사람보다 중산층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두 성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 성당은 시내 중심부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성당에서 시내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는 언덕 하나를 올라가야 하지만 25분만 걸으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성녀 마르가리타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에 오시



##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면적** 505,963km² [세계 50위]

**인구** 4,675만 4,783명  
[세계 30위]

**종교** 가톨릭 74% 이상

**성인** 301명

**복자** 2,115명

**수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성인** 성 아고보[대]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관할** 대교구 14개

**구역** 교구 55개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군중교구 1개

는 분들이 같아 얼굴과 성함도 다 알고, 또 안 오시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안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성가대나 전례단이 따로 없어 같은 사람이 늘 독서를 담당하고, 늘 같은 성가를 부릅니다. 금요일에는 미사에 오시는 분들과 미사 전에 성시간과 성체 강복을 합니다. 주일에는 마드리드에 사시는 한인분들이 오셔서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가 끝나면 같이 다과회를 합니다. 이어서 예비신자 교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아침이 되면 성당은 카리타스 봉사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북적거립니다. 물론 주임 신부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가끔 가서 보면 참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창고에서 옷을 골라가고, 밀가루나 우유와 같은 식료품도 받습니다.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나에게도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음식, 옷, 기타 물품들을 잘 기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사를 성녀 마르가리타 성당에서 한다면, 업무는 주로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합니다. 이 성당은 19세기 후반 스페인의 섭정이었던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크리스티나 왕비의 후원으로 마드리드의 가난한 가족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로 설립되었으며, 당시 유행하던 양식인 네오 무데하르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또

한 부속 건물로 과거 학교로 사용했던 건물과 운동장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학교 건물에서는 주일 11시쯤이면 첫영성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월요일엔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이면 청소년 아이들의 교육 수업이 있습니다. 공터에서는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행렬과 같은 전례 예식이 거행되기도 하고 주일학교 기금 마련



을 위한 바자회와 음악회도 열리곤 합니다.

저는 이 성당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성당 사무실을 지키며, 전화를 받고, 방문객들을 안내해드리고, 미사 지향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을 응대해드리기도 합니다. 고해 성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성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다른 신부님들께서 미사를 집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 제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적 한계도 있지만, 자기 일을 남이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해 불편하

게 생각하는 스페인 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침해했다고 여겨지므로, 무언가를 도와주어야 할 때 무턱대고 돕게 되면 도와주고도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에 관해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여기까지만 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낯설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스페인 생활입니다. 제가 이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기를 빌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박형문 바오로 신부 콜롬비아 엔가티바 교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콜롬비아 엔가티바교구, 그리스도 사제 성당에서 지내고 있는 박형문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곳의 코로나 상황은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미사를 드리거나,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미사 이외에는 마스크를 안 끼고 외출하는 경우가



## 콜롬비아

**수도** 산타페데보타

**면적** 114만km<sup>2</sup>  
(세계 24위,  
한반도의 5배)

**인구** 5,088만 2,891명  
(세계 29위)

**종교** 가톨릭 79%  
개신교 14%  
기타 7%

**성인** 4명

**복자** 13명

**수호 성인** 치킵키라의 성모

**관할 구역** 대교구 14개, 교구 52개  
군종교구 1개  
대목구 10개

종종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 언론에서도 크게 기사로 내보내고 있지 않아서 코로나의 관심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제가 있는 성당의 비어있는 곳에 oratorio(기도실, 작은 경당) 공사를 시작하여 얼마 전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처음 시작하신 양호 바오로 신부님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미국 필라델피아에 계신 유정규 미카엘 신부님, 동기 신부들,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도움으로 큰 무리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신자분이 저에게 다가와 'Muchísimas gracias'(대단히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먼 곳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니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한국에 있는 많은 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느님 나라 안에서 기도하는 공간이 따로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곳 oratorio를 완공하고 나서 제게 큰 감동을 준 것은 지역 주민들





이 진심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자세였습니다. 물론 안전상의 이유로 oratorio를 24시간 열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민분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문을 잠그려 갑니다.

어느 날, 한 신자분께서 oratorio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제 문을 닫아야 하니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날따라 저도 그 신자분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그분은 다시 성체 앞에 깊은 절을 드리고 뒷걸음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사제인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미사와 성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에 oratorio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정확히 세어 볼 수는 없지만, 약 20여 명이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중에는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도 계시고, 성당 옆 학교 하교 시간에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하교 후 부모님과 함께 짧게 기도하는 학생들, 주변 상점의 사장님들과 직원들, oratorio 앞을 지나가며 잠깐이라도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골 신자분들이 이곳을 매일 지키시고 하느님을 만나 자신만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oratorio 내 성체 주변에 아름답게 꽃을 놓고 가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러운 부분을 손수 치워



주시는 분들까지, 하느님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저 또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며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체험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사제로서의 앞으로의 삶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11월 중순) 성탄 준비를 시작한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이면 각 가

정에 성탄을 상징하는 화려한 조명들이 반짝이고, 마트나 상점에서도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구나.’라는 생각과 ‘또 다른 새로운 교회력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에 지난 한 해 동안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안 좋았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달라고 간절히 청해 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성당 oratorio 공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머나먼 콜롬비아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 김현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350년이라는 신앙의 역사 안에서...

현재 제가 있는 성당은 1672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당이 봉헌된 지 3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신자들과 함께 성대하게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35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오래된 제의, 제구를 비롯한 유물들을 전시하였고, 또한 역사가 담긴 사진을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350주년에 맞추어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었





고, 마지막으로 저희 본당의 주보 성인들이신 성 베드로, 성 바오로의 성상을 모시고 행렬도 하였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톨릭교회의 깊은 역사에 대해 느낄 수 있었고, 그 역사 안에서 살아온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350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화산폭발과 지진으로 인해 성당이 무너진 때도 있었고, 독재 정권으로 인해 박해와 탄압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단 한 명의 사제를 제외하고 모두가 추방당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제가 없던 약 30년간, 신자들은 교회의 재산이 독재 정권에게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굳건한 믿음으로 성당을 지켰습니다. 그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참으로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면적** 108,889km<sup>2</sup>  
[세계 105위,  
한반도의 1/2]

**인구** 1,791만명  
[세계 66위]

**종교** 천주교 47%  
개신교 40%

**성인** 1명

**복자** 15명

**수호 성인** 성 야고보(대)

**관할 구역** 대교구 2개, 교구 11개  
성직자치구 1개  
대목구 2개

그래서 강론 때, 신자들에게 그동안 성전을 짓고 지켜온 그 깊은 신앙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350년 전에 누가 이 성전을 짓고 하느님께 봉헌하였나요?”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 의도는 35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깊은 믿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고, 그 신앙의 유산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께서 ‘당시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서 노예들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통치 시대,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식민지의 노예로 생활해야 했고, 그들이 가져온 신앙에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입장으로는 또 다른 박해였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무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을 것이고, 강제 노동으로 커다란 돌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형제님의 정곡을 찌르는 대답이 저에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저에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 28)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첫 시작이 비록 노예 신분이었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 강제로 노동해야 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지금 우리가 35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와 신앙의 유산 안에서 믿음을 이어받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묵상을 신자들과 강론 때 나누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가꾸고 지켜온 그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신앙의 역사책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미사 봉헌을 통해 성경 공부와 묵상 그리고 묵주기도와 다양한 교









육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면 제가 이곳에서 신자들과 살아가며 함께 하는 선교의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희 본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가 속한 각각의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안에서 신앙의 역사책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정성껏 적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고 마침내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봉헌할 수 있도록 저도 과테말라 신자들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1개 국가 20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일본	김태근 베드로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김윤복 모세
	김재원 베드로샤넬		신광수 베드로
	김경진 베드로		김필중 세례자요한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알래스카)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박민서 베네딕토(농인 선교)		김성천 스테파노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콜롬비아	박형문 바오로
독일	신정훈 미카엘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니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0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 🌐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 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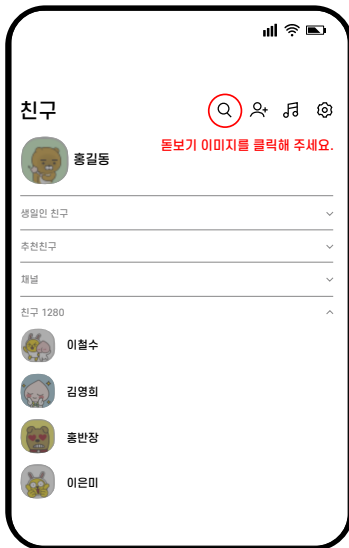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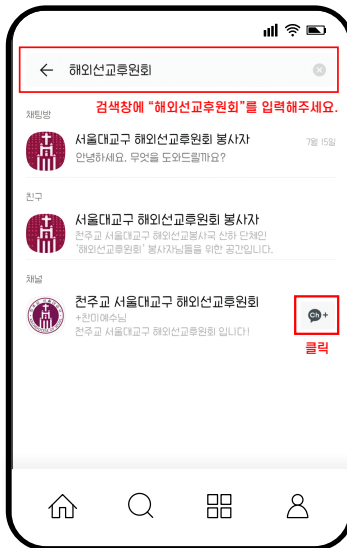
후원 신청 QR

# 해외선교후원회 카카오톡채널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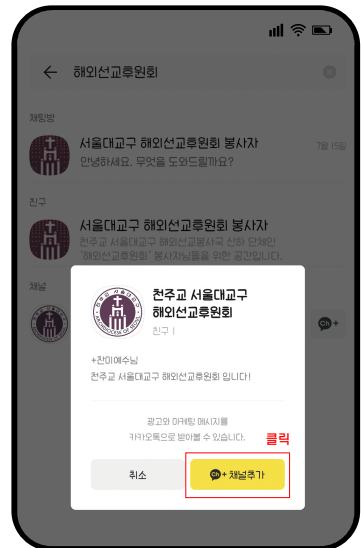
## 채널 추가 방법 ①



- 1 카카오톡 실행 후  
상단 위의  
돋보기 이미지 클릭!



- 2 해외선교후원회를 입력한  
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  
외선교후원회] 버튼 클릭



- 3 채널추가 아이콘  
클릭

## 채널 추가 방법 ②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1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2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3 홈에서 채널 추가



※ 채널에 가입하시면 모바일을 통해 소식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받는 소식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필히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 신년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3년 1월 5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안토니오 국장신부

김윤상 프란치스코 차장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 발급 안내

<담당자 연락처 ☎ 02-727-2409>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023년 1월 중순 이후)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전년도 신청자는 자동 발급되오니 따로 연락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 공지사항



###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발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국민은행

375-01-0091-080

신한은행

140-009-624437

농협은행

386-17-002881

##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 | mission@seoul.catholic.kr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사제 모임 (담당 차장 신부 주관)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해외선교 지원사제 모임 (담당 주교님 주관)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